

문학
11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

:: 『루쉰 소설』 루쉰

1918년 5월 중국, 루쉰(魯迅(노신))의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가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다. 루쉰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소설은 “당시 ‘표현이 철저하고 격식이 특별하다’고 여겨져 일부 청년 독자의 마음을 대단히 격동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자신의 말보다 더욱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소설은 지금까지 중국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입만 병긋하면 ‘인의도덕’을 말해왔지만 실인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사회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 소설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 사회진화론적인 관점, 인물의 순차적 행동과는 무관한 구성, 사실적인 묘사와 상징적인 표현, 고문(문언문, 한문)이 아닌 현대문(백화문)을 사용한 문장 등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종래의 중국문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

6

역사책을 들춰 보았다. 이 역사책에는 연대는 나오지 않고, 각 장에는 비뿔뿔 ‘인의도덕’이라는 몇 글자만 써 있었다. 나는 어차피 잠도 오지 않는 터라 한밤중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글자들 틈새로 다른 글자들을 볼 수 있었다. 책에는 온통 ‘식인’이라는 두 글자만 써 있었다. (...) 혹시 아직 사람을 잡아먹어보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

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소설은 1917년 이래 후스(胡適(호적)) 등이 제창해온 새로운 중국문학, 즉 신문학 또는 현대문학의 명실상부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 루쉰은 원래 소설을 쓸 생각이 없었다. 1881년 저장성 浙江省(절강성) 사오싱 紹興(소흥)에서 태어난 루쉰은 유복한 유년기를 보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벼슬을 하던 조부가 과거시험 부정 사건으로 투옥되고 몇 년 후 부친마저 병으로 일찍 죽는다. 그 뒤 그는 어린 나이에 온갖 세파를 경험하고, 고생 끝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다. 하지만 이런저런 좌절의 연속으로 귀국 후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옛날 소설을 베껴 쓰거나 비석을 탁본하거나 하며 지내던 차였다. 수년을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첸취안통 錢玄同(전현동)이 찾아와서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달라고 한다. 이에

루쉰은 중국이라는 무쇠로 만든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고이 죽어갈 것을 왜 하필 깨우려 드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첸센통은 몇몇 사람들이 일단 깨어났으니 그 무쇠방을 깨뜨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한다. 결국 루쉰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희망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는 뜻에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광인일기」였다. 이후 그는 1936년 상하이(上海)에서 '민족혼'이라고 쓴 흰 천으로 덮은 관에 누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쉬 없이 글쓰기를 이어갔다.

루쉰은 일생 동안 근 30권에 이르는 소설, 수필, 시, 평론, 학술 저작 등을 남겼다. 그중 소설은 『외침(呐喊[늘함])』, 『방황(彷徨)』, 『새로 쓴 옛날이야기(故事新編[고사신편])』 등 모두 3권의 총 33편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설가로서 그의 성취는 그의 소설이 보여주는 사상성과 비판성, 생동성과 상징성에 있는 것이었다. 예컨대 단편소설이 아닌 그의 유일한 중편소설 「아Q정전(阿Q正傳)」이 그러하다. 주인공 아Q는 농촌의 홀홀단신 낱품팔이 노총각이다. 아Q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며, 터무니없이 으스스대는가 하면 심약해서 벌벌 떨고, 약삭빠르게 구는 듯하지만 실은 무지함 속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사형을 당하고 만다. 그러한 아Q가 지닌 최대의 특징은 실로 그 방식도 다양한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이다. 남에게 얻어맞고는 요즘 세상이 돼먹지 않아서 그렇다며 욕하는 것으로 만족해한다거나, 상대방더러 자신은 버러지니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신이 스스로를 경멸할 줄 아는 제 1인자이므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제1인자인 셈이라며 흡족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노름판에서 난생처음 딴 돈을 열걸에 몽땅 뺏기고 나자 핫김에 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게 되는데, 그 와중에 정작 자기가 왜 뺨을 때리게 되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뺨을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도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때리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자라고 느끼면서 득의양양해 한다. 이처럼 아Q는 그야말로 서양 열강에 수탈을 당하면서도 과대망상적 자존심만 내세우는 청나라 황제와 황족 또는 관료와 지식인들 같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지몽매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중국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그의 소설은 소재 면에서 보자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앞서 말한 「광인일기」를 포함해서 주로 지식인을 다룬 것이다. 「콩이지(孔乙己[공을기])」의 콩이지, 「흰 빛(白光[백광])」의 천스청 등 구식 지식인들은 혹 글줄깨나 읽었고 마음씨도 좋지만 남의 책을 훔쳐서 술이나 사 마시며 헤어 나오지 못한다거나 혹은 나이 쉰이 넘도록 과거를 보지만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미쳐서 죽고 만다. 신식 지식인 역시 그들과 큰 차이가 없다. 「두발 이야기(頭髮的故事[두발적고사])」의 N, 「술집에서(在酒樓上[재주루상])」의 휘웨이푸, 「행복한 가정(幸福的家庭[행복적가정])」의 화자, 「고독한 사람(孤獨者[고독자])」의 웨이렌수, 「죽음을 슬퍼함(傷逝[상서])」의 쥐안성 등은 신사상과 신문화를 추구했으나 시대적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 먼먼한다. 또 「단오절(端午節)」의 팡쉬안취, 「비누(肥

흰(비조)의 쓰밍, 「가오 선생(高老夫子[고로부자])」의 가오 선생 등은 한때 앞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추구했으나 결국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인물이 되고 만다. 그 외 「오리의 희극(鴨的喜劇[압적희극])」, 「형제(弟兄)」 등도 이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식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는 자기기만, 허위의식 등이다. 예컨대 쥐안성과 쓰촨은 자유연애 끝에 동거에 이르지만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쓰촨은 아버지를 따라 돌아간 뒤 곧 이승을 하직해버리고 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는 사회제도의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사실상 남성인 쥐안성의 여성인 쓰촨에 대한 회피성 행위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둘째는 「아Q정전」을 비롯해서 주로 농민, 소시민 또는 농촌사회를 다룬 것이다. 농민 또는 그에 준하는 인물들에 대한 루쉰의 태도는 양가적이다. 기본적으로 루쉰은 그들에 대해 진한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한 정직한 인력거꾼을 묘사한 「작은 사건(一件小事[일건소사])」이라든가 유년 시절의 행복한 회상을 다룬 「마을 극(社戲[사회])」이 그러하고, 심지어 아Q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내면적이고 잠재된 것이다. 그보다는 그들이 봉건사회 속에서 노예근성이 뿔속까지 깊숙이 배게 됨으로써 우매하고 마비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어린 시절 그렇게도 순수하고 씩씩했던 친구가 후일 성장하여 지식인 화자를 다시 만나자마자 ‘나으리’라고 부르는 「고향(故鄉)」、 죽은 사람의 피를 적신 만두로 폐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혁명 열사의 형장에서 피 묻은 만두를 팔고 사는 「약(藥)」、 선량한 마

음을 가지고 있으나 봉건적 관습과 미신 속에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괴수택을 그린 「축복(祝福)」, 신해혁명 이후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풍파(風波)」 등이 모두 그렇다. 또 그 외에 「내일(明天[명천])」, 「토끼와 고양이(兔和猫[토화묘])」, 「장명등(長明燈)」, 「조리돌림(示衆[시중])」, 「이혼(離婚)」 등도 대략 이에 속한다.

셋째는 옛날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세상을 만들어낸 여와가 푸른 돌로 하늘을 메웠다는 이야기로 인간과 문학 창작에 관해 말하고자 했던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補天[보천])」, 우 임금의 치수 신화를 통해 현재의 반동적인 행태를 풍자한 「치수(理水[이수])」, 노자가 공자의 위협을 피하여 변경으로 나가 은둔한다는 전설을 통해 현실 도피적인 인물들을 비판한 「출경(出關[출관])」, 장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해골을 보고 도로 살려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비틀어서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민중을 되살려내고자 한 「죽은 자 살리기(起死[기사])」 등이 그렇다. 또 불사약을 훔쳐 먹고 선녀가 되어 달로 도망쳤다는 상아 이야기를 각색한 「달로 달아난 상아(奔月[분월])」, 두 임금을 모시지 않으려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 먹으면서 살았다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각색한 「고사리를 캐는 사람(採薇[채미])」, 칼의 명인이 보검을 만들어 바쳤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하자 아들이 복수했다는 이야기를 각색한 「도공의 복수(鑄劍[주검])」, 목자가 초나라 왕의 송나라 공격을 말린 이야기를 각색한 「전쟁 반대(非攻[비공])」 등도 모두 그렇다. 물론 이 소설들 또한 단순히 옛 이야기의 되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패러디 방식을 사용하

여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봉건사회의 해악을 폭로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루쉰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필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봉건적 중국을 비판하고 새로운 중국을 열망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는 데서 가능하다고 믿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소설이 이런 의도와 주장을 마치 논설문처럼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물 창조, 장면 묘사, 사건 구성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그의 소설은 몇 개의 짧은 단어나 구절로도 충분히 생동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예리하고도 치밀한 비판적 사고와 울울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정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공감하고 사색하도록 만들었다. 예컨대 그는 「광인일기」에서 광인을 내세워 모든 사람이 봉건사회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소설에는 끊임없이 민중을 비판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고자 하면서 그것이 여의치 않음에서 오는 개천 자로서의 고뇌가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는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의하고 방황하면서도 끝까지 분투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고향」에서 루쉰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곧 땅 위의 길과 마찬가지로. 사실 땅에는 본래 길이 없었으나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

루쉰의 소설은 단순히 과거 중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또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달리 말하자면,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그의 소설 읽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더욱 깊이 깨우치고 성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루쉰의 첫 번째 소설이 발표된 지 거의 100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만도 100종이 훨씬 넘는 그의 소설집이 출간되었다. 그중 완역본으로는 『루쉰 소설 전집』(김시준 옮김, 을유문화사, 2008)이, 발췌본으로는 『루쉰 전집 2 외침·방황』(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린비, 2010)이 비교적 최근 것이다. 만일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발췌본을 먼저 읽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Q정전』(전형준 옮김, 창비, 2006)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루쉰의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수필집 겸 평론집인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이육연 옮김, 예문, 2003)나 『투창과 비수』(유세중 외 편역, 숲, 1997)를 선택할 만하다. 그 외 『루쉰 평전』(주정 지음, 홍윤기 옮김, 북폴리오, 2006)이러든가 『루쉰의 문학과 정신』(홍석표, 선학사, 2005) 등 루쉰에 관한 전기와 연구서 역시 제법 많이 출간되어 있다.

김혜준 | 부산대 · 중국현대문학